



## 忠淸南道 副知事

# 白世鉉씨

◎……京畿高校, 서울大法大출신으로 속칭 「K·S마크」인 충청남도 부지사 白世鉉씨 —.

엘리트 코스만 걸어온 탓인지 안경 너머로는 날카로운 叡智가 변덕이다.

◎……「— 우리 忠南은 예로부터 人命을 존중하는 의식이 앞서 있지요. 인심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양반의 고장이라서 그런지 지금까지 고질적인 악역(惡疫)이 없는 고장입니다. 그래서 도민중 65세 이상의 교령자가 타도



가 3.5% 정도인데 비해 충남은 5.5%로 2%가 높은 편입니다. 확실히 살기 좋은 고장이지요. 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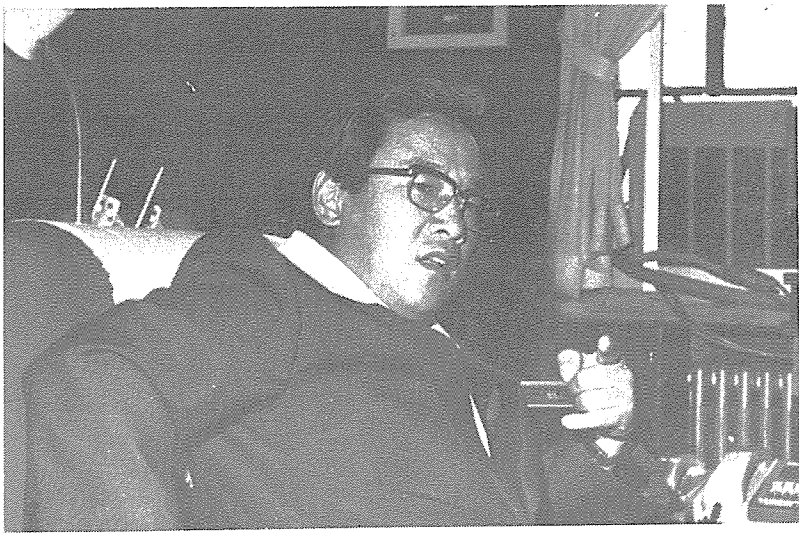
조리있게 설명하는 白副知事는 示範保健道로서의 면목도 躍如하다고 자랑한다.

「환경위생측면에서 볼때 우리道는 400km의 금강을 끼고 있습니다. 道民의 적출인 셈이지요. 그리하여 82년도에 수질보전협의회를 만들어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깨끗한 水質을 保全하기 위함이지요. 또한 수질 보전위원회도 창설하여 他道에 없는 자연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펼친 결과 환경청에서도 極讚을 아끼지 않아서 환경관계 직원들의 사기가 드높단다.

「…… 이번엔 전국 소년체전의 우승도 기본적인 충남도민의 저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어느해를 막론하고 상위권 입상을 한것은 목표만 있다고 되는것이 아니고 이에 알맞는 지역적 특성등이 고려된 체력관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소년체전에 우승한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白副知事는 환경에 따른 조직적인 체력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力說한다. 또한 도민 전체의 건강을 감안하여 년예산 2,000 만원을 들여 1回用 주사기를 구입, 전체 병원과 보건소에 배분하여 간염으로부터의 전염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단다. 이것은 전국에서 충남도만이 시작한 가장 보람있는 보건사업으로 생각한다



자부하고 있었다.

——기생충 관리에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으시다면?.

「도민 전체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기생충퇴치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금년에는 조사연구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려 합니다.

예전에 임금님께 진상하였다는 유명한 민물게인 “노성계”의 디스토마 감염여부의 조사연구도 할 작정으로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있지요……」

금년에도 하부기관인 시군지역단위로부터도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노라면서 32万명의 기생충 검진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 새로 발족을 본 건강관리협회 사업에 대해선 충남으로서 어떤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 기생충퇴치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화병이라고 일컬어지는 비전염성질환인 당뇨병, 고혈압등이 현대사회에는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늦은 감은 있지만 건강관리협회의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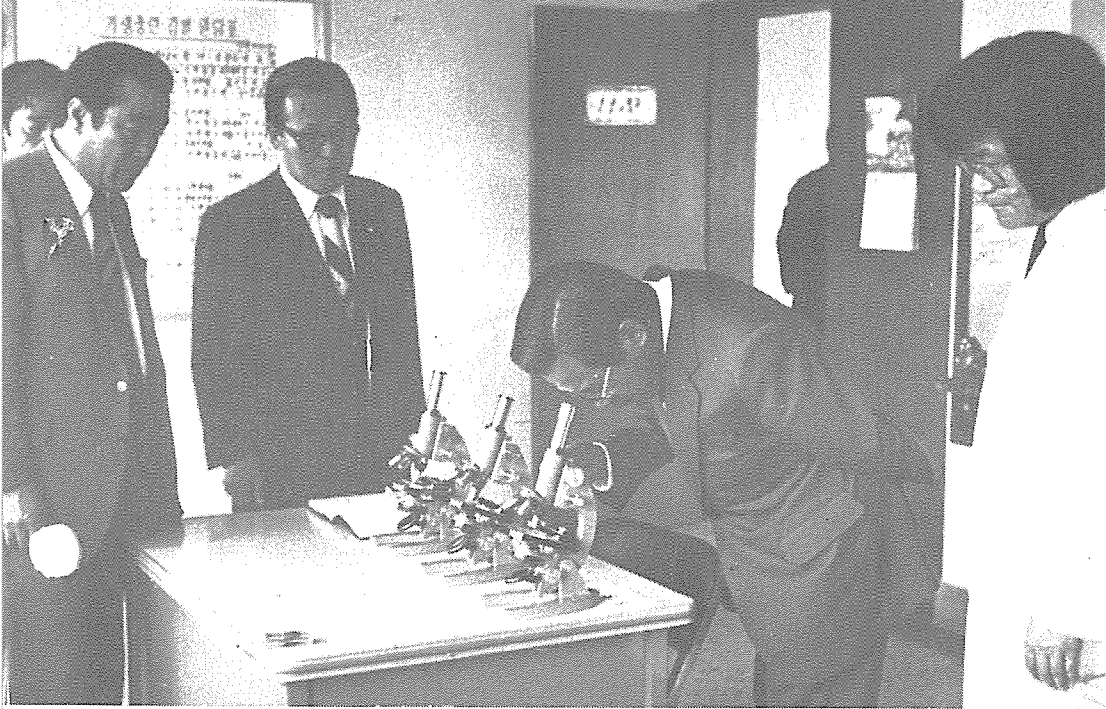
우리도에서도 건강검진센터를 설치해서 각종 질환을 체크, 질병을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물론 주요장비등에 재정적 부담이 많을것으로 짐작되지만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道에서도 재정지원을 적극화 할테니 中央本部에서도 장비등의 풍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力說하는 白副知事の 모습에서 道민건강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를 엿볼수 있어 기자는 마음이 한껏 흐뭇함을 느낀다.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부장을 거쳐 경북 구미시장, 水原시장, 경북도기획관리실장, 산림청 임정국장을 거쳐 現職에 취임했다.

취미는 정구등 万能운동선수, 부인 朴性垠여사와의 사이에 1男1女の 多福한 가정.



## 忠清南道 白世鉉副知事(支部長)

寄協 忠南支部시찰

충청남도 白世鉉 副知事  
 는 지난 5월11일 寄協 충  
 남지부를 초도순시하고 기  
 생충 사업에 종사하는 직  
 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더  
 욱 더 국민보건을 위해 진  
 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검사실에 들러  
 현미경 속의 기생충을 들  
 여다 보는 白부지사.

⇒ ...충남지부 청사  
 내를 두루 순시하는 白副  
 知事(右로부터 2 번째)

